

138 번째 기도 편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 7 장 11 절

할렐루야

2026년 시작한지 벌써 1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여러 연말 연시 행사와 성탄절
행사로 시간이 어찌 지나는 지도 모르게 한해가
지나가고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연말에 여러 행사와 예배 또한 성탄을 맞이하여 사랑을 흘려 보내주신 분들 덕분에 올해도 인도에 500여명의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이의 탄생을 기뻐하고 그 기쁨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 목사님들 중에 어렸을 적 성탄절에 선물을 받으러 갔다가 목회의 길을 걷게 되셨다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눈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실한 크리스도인으로 자라 가길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고 올해도 매순간 순간 더 큰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치사를 75%에 백신도 없다는 니파 바이러스의 근원지로 저희가 살고 있는 인도 서벵갈 콜카타에서 시작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염려하시고 연락해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요즘 켈커타는 곧 다가올 지방 선거 열기로 바이러스 소식은 잠잠한 편입니다. 주변에 아직까지 크게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니파 바이러스를 염려할 틈도 없이 바쁜 연말을 보내고 연초에 제가 산부인과 계통의 문제로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시댁 어른들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가시고 다른 한 분도 병원에 가셔서 거의 매일 병원을 다니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함을 연초부터 깊이 고백하며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2002년 1월 첫 주에 설립된 은혜공동체 교회가 올해로 2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돌아보면 한 순간 한순간 은혜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4년 수만큼 크게 성장하지 못한 것 같아 주님께 죄송한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지금까지 지낼 수 있었던 모든 것이 감사 또 감사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작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1월 18일에는 신학생 빌리엄과 아시스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3년 과정을 충실히 마치고 졸업하고 각자의 교향으로 돌아가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2006년 시작하여 지금까지 신학교를 통해 많은 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안타깝게 중간에 포기한 친구도 있지만 대부분 공부를 잘 마치고 졸업을 했어 각자의 교향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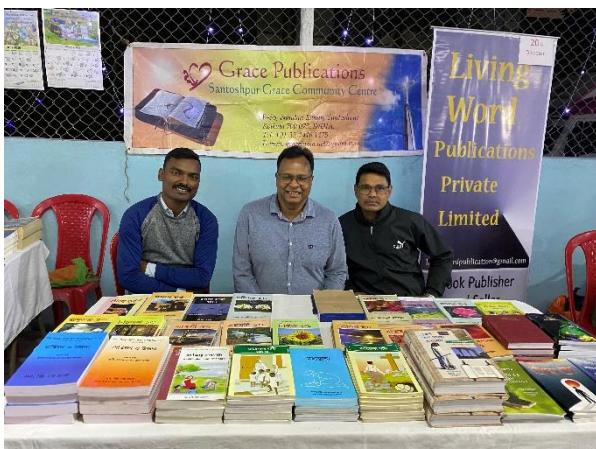
돌아가 열심히 서역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그러나 올해 처음으로 신입생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국도 신학교가 정원 미달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 같은데 인도도 헌신된 사역자를 찾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안이라도 말해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의 보내주시고 만들어 가는 은혜공동체



신학교가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월 25일에는 입교 2명과 함께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다녀도 세례를 받기는 꺼려하는 인도에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처럼 인도 땅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신실한 삶을 살아가며 작은 예수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더 많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1월 23일과 24일에는 켈카타에서 기독교 서적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은혜 공동체도 한 부스를 받아 그 동안 저희가 번역하고 출판한 서적을 소개하고 팔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



벵골어로 된 기독교 서적을 찾기 힘들고 문맹률도 있고 책을 잘 사 보지 않는 분위기 때문에 출판 사역이 점점 쇠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치 인도에서 기독교의 쇠퇴를 보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파 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올해 많이 추었다고 들었습니다. 인도는 아주 짧은 겨울이 지나고 오늘 한 낮에는 29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올해 더워가 벌써 겁이 납니다.

2026년 'Coram Deo' 매 순간 주님 앞에 선 마음으로 또한 'Soli Deo Gloria!'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 위해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기도하며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 제목이 기대하고 구한 것 보다 더 크고 아름답게 이루어지시길 사랑의 빛 진자로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26년 1월 29일
기쁨의 도시 인도 캘카타에서
로수종, 진혜경, 샤론, 줄리아, 세라
은혜 공동체 식구들

후원 하시려면

외환은행 010-04-06388-042 GMS

신한은행 355-12-055-930 진혜경

인도연락처

Tel: +91-33-2416-7718 (H); +91-33-2416-1475 (Ch)

Mobile: +91-98306-44208; +91-98307-76629

E-mail: jinhyekyong@gmail.com